

연기자 명로진

나는 프로 인디라이터를 꿈꾼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명로진. 기자 출신의 연기자로 이름을 알리더니 어느 날은 살사댄서가 되어 TV에 출연했다. 그가 열네 권째 책을 냈다. 《인디라이터》(Independent Writer). ‘글쓰기 방법’을 안내한 책이겠지 지레 짐작하고 펼쳤는데 내용이 남다르다. 책과 관련된 이력 하나도 눈에 들어왔다. ‘심산스쿨 인디라이터반 강의’. 어떤 이야기를 책에서, 강의실에서 풀어놓는지 궁금해졌다.

그의 작업실은 아담하다. 셀러리맨은 아니지만 그는 매일 도봉구에 있는 집에서부터 홍대 작업실까지 출퇴근한다. 하루 3~4시간씩 규칙적으로 글을 쓰기 위함이다. 절친한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집단 심산스쿨(simsanschool.com)에서 그가 처음 강의 제의를 받은 것은 ‘연기반’ 이었다.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연기론을 지도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던 차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인디라이터’라는 용어를 접했다. 그 역시 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바 있는 ‘인디라이터’였으니 고민할 것도 없이 강의를 개설했다. 그리고 어느덧 6개월째.

“출판 편집자와 예비 저자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 강의를 듣는 예비 인디라이터들에게 실제로 좋은 원고가 이미 있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책 이야기 하는 거죠.”

그가 출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교 시절. 지금은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심산, 위기철, 공지영 세 명의 선배들이 학생 신분으로 책을 펴내고 인세를 받아 등록금을 해결하는 것을 보았던 그는 용기있게 습작 시를 모아 무작정 출판사를 찾았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말도 안되게’ 계약이 이뤄졌고, ‘놀랍게’ 인세를 받아 한 학기 등록금을 채웠다. 그가 저자로서 책과 인연을 맺은 첫 사건이었다. 그 후 신문사에 입사해 매월 25일 지급되는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보냈다. 책을 써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할 틈이 없었고, 연기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뎠다.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습작을 하곤 했어요. 출판에 대한 제 생각은 일반적인 저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완성품을 가지고 출판사

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잡아 출간을 염두한 글쓰기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인디라이터 강좌 수강생들이 저 같은 분들이예요. 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험을 토대로 ‘나도 책을 한 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서점에 무수히 진열된 ‘글쓰기 방법론’은 애초에 쓸 생각도 없었던 단.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글 쓰는 사람과 편집자의 관계.

“대형 서점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생각한 주제인 ‘어떻게 책을 낼 것인가’에 대한 책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번 책 《인디라이터》에는 말 그대로 아이템 발굴부터 기획서 쓰기, 계약서 검토까지 책을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그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시대가 ‘인디라이터’를 탄생 시켰다고 말한다.

“최근 1~2년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해요. 책을 쓰게 된 것도 UCC 시대에 맞춘 거죠. 이제는 글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영상 올리는 것처럼 책도 누구나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책들이 ‘가볍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인디라이터’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일반인 저자들이 오히려 많이 양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가 생각하는 ‘가볍다’의 의미는 일단 잘 읽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이 어려워 읽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어떤 책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가 스스로 자부하는 인디라이터로서의 강점도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다. 그는 지금 올해들어 세 번째 책을 쓰는 중이다. “출판사가 손해 보지 않게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솔직하고 뚜렷한 그의 모토가 밟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든 호기심과 추진력을 동원해 즐겁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연기, 등산, 춤, 책 쓰기…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요. 한 분야에 관심을 두면 깊이 들어가는 타입이예요. 글쓰기의 매력에 빠졌으니 좀더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싶어요.” **김민**

